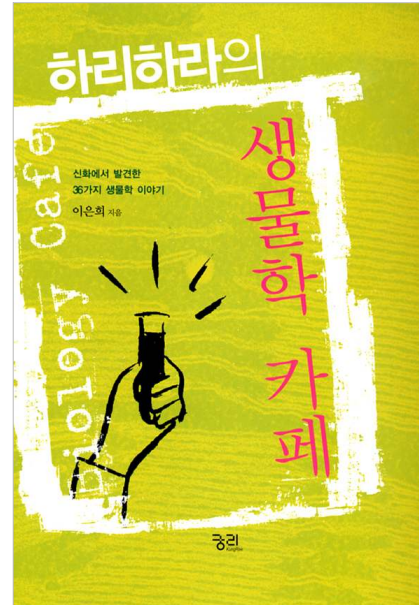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지음 | 류기정 그림

자연과학|309쪽|신국판|10,000원|
ISBN 89-88804-67-8(03400)
2002년 7월 18일 출간



생물학, 신화를 만나다!

영원한 청춘을 원한 시빌레와 매미가 된 티토노스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탄생과 노화’를 고민하고,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 노래에서 ‘사랑과 호르몬’의 관계를 끄집어낸다면?
유명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상 갈라테이아를
만든 것에서 ‘인공 생명’을 떠올린다면?
비만과 유전자, 동성애와 성적 자유, 성장 호르몬과 노화, 광우병과 탄저균,
인공 생명 등 생물학의 뜨거운 키워드들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생명의 수수께끼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신화를 읽는 쏠쏠한 재미까지 선사한다.

발랄하고 젊은 과학도 하리하라와 함께 생물학 카페에서
무궁무진한 신화의 재미와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만끽하자!

이제 과학자는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글들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져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MIT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뜻밖에도 ‘작문 책’이다. 우수한 공과대학 학생들이 왜 이토록 작문 책을 사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쓰기를 통해 명쾌한 사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연구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쓰기는 지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중은 물론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다윈, 슈뢰딩거, 자크 모노, 제임스 왓슨, 레이첼 카슨 등은 단지 논문뿐 아니라 대중이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책을 썼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자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들을 출간해 그들과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개미』로 풀리처상을 두 번 받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 가이아 학설을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과 린 마굴리스, 마음을 파헤치는 이론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등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로 손꼽히는 인물들이다.

최근 우리 나라 과학 출판도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으나, 과학 글쓰기의 현실은 아직도 척박한 편이다. 일단 과학책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화제작들이 그대로 번역출판되고 있으며, 강단에서 활동중인 필자나 과학 분야 원로들의 글에서는 여전히 엄숙주의가 그대로 느껴진다. 물론 소수의 글 잘 쓰는 과학자들도 있으나, 이들이 다루는 소재와 역할 분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좀더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젊고 활기찬 과학자들이 등장할 때이다.

**과학 글쓰기의 다양한 단층을 보여주는 문제작,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과학을 꼭꼭 씹어 제대로 소화해내 ‘우리들의 과학’을 선보인다!**

■과학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95학번 생물학도의 생생한 목소리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는 27살의 젊고 발랄한 여성 과학도(굳이 성별을 따진 이유는 지금까지 과학 필자들은 모두 남자였기에)가 일반 독자들에게 요즘 주목받는 생물학 관련 키워드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내려간 과학 에세이다. 저자는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해 지구력이 필요한 실험실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과학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인터넷에 생물학 분야의 칼럼을 한 편 두 편씩 쓰고 있던 터였다. 여기서 ‘하리하라(hari-hara)는 저자의 아이디어로 인도 신화에서 따왔다. 이는 인도 신화의 빛과 시작과 창조와 신 비슈누(Vishnu)와 어둠과 파괴와 파괴의 신 시바(Shiva)의 합체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처음이자 끝이고 창조이면서 동시에 파괴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함, 자칫 모순될 수 있음에도 완벽한 원형(原型)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저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열린 글쓰기,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친근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저자는 현재 태평양화학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친절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대중과 눈높이를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저자 나름대로 잘 소화해낸 과학 칼럼을 쓸 수 있었다.

■글쓰기의 모태가 된 인터넷

원래 이 책의 원고는 인터넷에서 탄생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인터넷에서 보통사람들도 자신의 글쓰기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꾸준히 DAUM (<http://column.daum.net>)에 <GATACA에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라는 생물학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좋아하는 사이버 독자들과 충실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신세대의 경쾌함을 지녔으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진지함이 꾸준히 오래 글을 쓸 수 있게 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생물학의 뜨거운 키워드들이 모두 모였다

이 책은 1장 생명의 탄생과 노화, 2장 유전자의 진화, 3장 성과 남녀의 진화, 4장 호르몬에 대하여, 5장 질병과 면역계, 6장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성장호르몬과 노화, 비만과 유전자, 성의 선택, 난자와 정자의 판매, 피임, 성적 정체성과 우리 사회의 관용성, 동성애와 성적 자유, 환경 호르몬, 광우병과 탄저균, 장기 이식, 인공 생명, 복제 동물과 인공 장기 등 TV, 신문 등 매체에서 자주 다루었던 생물학 분야의 다양한 키워드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저자는 이들을 소재로 영화, 만화, 노래가사 등 우리 실생활의 친근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글을 전개하고 있다.

‘모체와 태아의 생존 대결’을 ‘군비경쟁’으로, ‘쌍둥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한때 이슈가 되었던 삼쌍둥이 분리 수술 논쟁으로 관심을 끌고, ‘비만과 유전자’에서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개그우먼 이영자가, ‘성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리수가 등장한다. ‘성장호르몬과 노화’에서는 영화 <가타카>와 영화배우 골디 혼이 나오고, ‘엔돌핀과 임사 체험’편에서는 요즘 한창 붙인 달리기를 끌어들이고, ‘생체 시계와 멜라토닌’을 이야기할 때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다시 한번 다룬다. 또한 ‘우울증’에 대해 말할 때는 우울증 자가 진단법을 표로 만들어 보여주고, ‘인공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A. I.> 등 관련 영화와 책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기에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합니다, 해요’ 대화체를 살린 것도 저자의 친절하고 친근한 모습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생물학이 신화와 만날 때

저자는 인터넷에 올렸던 글들을 책으로 엮을 때 좀더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으며, 여기에 신화라는 양념을 가해 그 읽는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키는 재치를 보였다. 즉 본격적으로 생물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 소재의 모태가 되었던 신화를 앞부분에 짚막하게 언급하여 묘한 대비를 이루도록 했다.

카오스 상태에서 자연이라는 신이 땅과 물과 하늘 등을 만들고, 프로메테우스가 보이오티아의 파노페이아에서 발견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것에서는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의 부인인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진 제우스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백조로 변신한 이야기를 ‘쌍둥이의 탄생’편 도입부에 배치했다. 또한 아폴론으로 예언력을 전수받은 시빌레의 이야기와 새벽의 여신 에오스와 매미가 된 티토노스의 이야기는 두 편에 걸쳐 쓴 ‘노화’편 앞에 등장한다. 데메테르 여신을 욕보인 죄로 그녀의 저주를 받은 에리직톤이 끊임없이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을 모두 먹어치운 이야기는 ‘비만과 유전자’편의 소재가 되었으며, 전설적인 여성 무사들인 아마조네스 이야기는 ‘성의 선택’편에서, 유명한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상아 처녀 갈라테이아를 만든 이야기는 ‘인공 생명’편에서 만날 수 있다.

■저자의 캐릭터 하리하라와 만나다

이러한 내용상의 특징 외에 밝고 경쾌하게 그린 본문 일러스트와 사진, 그리고 저자의 캐릭터는 이 책에 더 한층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책 이곳저곳에서 저자는 할 이야기가 많은 듯 캐릭터의 모습으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또한 본문의 일러스트는 현재 뇌과학을 전공하는 과학도가 그린 것으로, 유머러스한 소재에 웃음이 절로 난다.

이 책을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듬는 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종의 출산 전 진통이 심했다고나 할까. 그런 만큼 앞으로 과학 분야 필자군의 기대되는 유망주로 성장하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